

낙농 1년여 만에 착유 29두에서 1일 평균 1.1톤의 원유를 생산

오종권 / 남북목장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101-1

목장을 하기위해 10여년을 준비한 끝에 1.3톤 규모의 목장을 만들었다. 목장시설은 우선 2층 거실에서 목장상황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거실창문을 크게 하였고 안방에 누워서도 볼수 있게 작은 창문도 만들어 놓았다.

우사는 사료급여조를 포함하여 120평 정도로 적어 규제를 약하게 하였고 우사의 양옆으로 150평씩의 비가림시설(장수비널)을 하여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목장은 낙농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목장시설이나 소들의 성적이 비교적 우수하여 전업낙농가를 계획하고 있거나 목장시설을 새롭게 신축하려는 다른 낙농가들에게 참고가 될까싶어 이렇게 낙농육우지에 글을 써본다.

목장상황을 간략하게 말하면 600여평의 목장부지에 사료급여조 및 축사가 120평, 양쪽에 150평씩의 비가림시설, 1층은 2열4두의 헤링본착유실, 2층은 살림집으로 되어있고 착유우 28두, 건유우 12두로 평균유량 37kg, 세균수 1등급, 체세포는 1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목장과는 달이 아직 육성우사 시설이 부족해 육성우는 사육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목장은 시작부터 남다른 면이 있다. 어려서부터 낙농을 직접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나 낙농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아 인공수정사 생활을 먼저 시작하여 15년 넘게 해오면서 10여년 전부터는 낙농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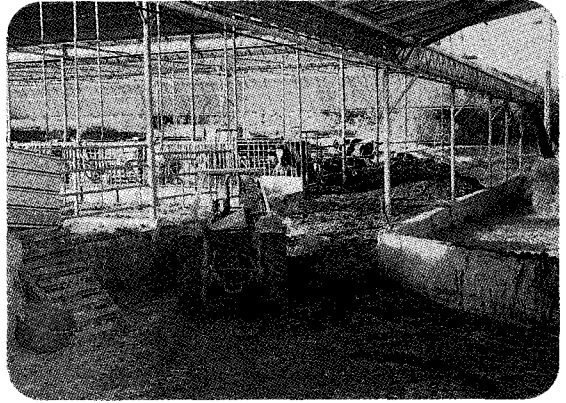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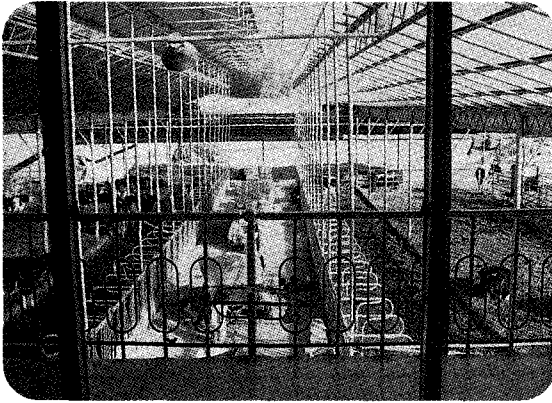
우사를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짓기위해서 다른 여러목장을 다니면서 좋은점과 나쁜점, 불편한점 등을 하나하나 메모해두었다가 목장설계를 구상할 때 모두 고려하였다.

우사를 한번 지었다가 소들이 늘면 조금 더 늘리고 착유두수가 늘면 착유기도 교체하는 등 이에 따른 중북투자비용을 대부분의 목장이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3톤 남유를 목표로 모든 시설을 여기에 맞추어 시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자금 이 처음부터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우선 후계자자금 1,500백만원과 전업농시설자금 8,500만원, 그동안 적금을 부은 돈 4,500만원 등 모두 합하여 1억 5천여 만 원으로 우사시설과 착유소 20두, 초임우 20두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낙농을 처음시작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우사시설과 착유시설을 모두 갖추어 놓고 엔실리지까지 담그어 놓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놓은 후 경산우 20두를 구입하여 그날부터 착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착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주위에서 낙농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 주어 첫 착유를 무사히 한 경험이 있기도 하다.

목장시설은 우선 2층 거실에서 목장상황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거실창문을 크게 하였고 안방에 누워서도 볼수 있게 작은 창문도 만들어 놓았다. 우사는 사료급여조를 포함하여 120평 정도로 적어 규제를 약하게 하였고 우사의 양옆으로 150평씩의 비가림시설(장수비닐)을 하여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사바닥은 톱밥발효우상으로 되어 있다. 우사 가운데 통로를 넓게 하여 조사료 및 농후사료를 쌓아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급여할 수 있게 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다. 또한 분뇨처리도 우사끝쪽에 2미터 정도 낮게 설치하고 로더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처음 낙농을 시작할 때만해도 소에게 사료를 주고 젖만 짜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낙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료연구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이제는 사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낙농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은데 낙농을 시작한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은 사람이 낙농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색하지만 목장성적이 단 기간에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산유량을 높이기 위해 육성우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유량이 늘지 않아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육성기도 중요하지만 건유기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초산때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다음 건유기때 관리를 잘 하여 주고 소의 개체마다 능력을 잘 측정해서 개체의 특성에 맞게 소화율 등을 고려해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급여해주면 좋은 성적(35kg내외)을 이상의 성적을 나타낼 수 있다.

건유가 들어가기 전에 유방염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치료해 주고 반드시 구충을 실시하며 호흡기 질병이나 부제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

건유기에는 건유사료를 먹여 과비가 되지않게 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다음에 보다 많

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체세포수가 높은 유량이 적든 번식장애가 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해법이 있게 마련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이다. 사료에 따라서 소의 건강이 좌우된다.

이제는 낙농가들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관련자료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낙농가들은 관심이 없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잘 하려하지 않는다.

축주가 소들의 관리와 착유는 물론 자급조사료 생산과 벗짚수거 등의 모든 일을 손수 다 하려고 한다면 소들의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진다. 옥수수파종이나 수확기에는 소들을 돌볼 틈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얼마되지 않은 사료포를 경작하기 위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기계들을 사서 잠깐 동안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 ㉞

(연락처: 0417-564-3873)